

■ 급락하는 환율, 경제부담 가중

수출 中企 타격...경기 회복 '발목'

국제 유가가 전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마저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 겹쳐 '이중고'

"기업, 적극적 환헤지 나서야"

달러를 960원에서 945원으로 수정했다. 이는 하반기 평균을 930원, 저점은 910원대로 예상한 것이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다른 나라의 통화와 비해 빠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성장률 등 거시지표 악화=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수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품질이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환율하락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환율하락은 치명적이다.

이 되면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8월 오전 한때 929원대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중소기업의 수출포기를 의미하게 된다.

또 환율하락이 지속되면 수출은 줄어 들고 원화강세로 해외여행이 늘어나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도 위협하게 된다.

유가충격 흡수, 물가안정 등 환율하락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수출감소,

▲환헤지(Hedge)=환 헤지 혹은 헷지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환헤지 툴(Tool)로는 선물환·환보합 등이 있다.

재경부는 또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재정검할 계획이라고 밝혀 유가와 환율악화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전문가들 조언=전문가들은 원화 절상은 당연한 추세이지만 절상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문제라며 적극적인 환 헤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절상은 당연한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견조해 수출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자본유입도 많아 절상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해외투자가 생산적인 투자쪽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국내 외환보유고를 달러가 필요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여신으로 제공해주는 등 수급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국제유가와 더불어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대외변수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섰다.

'핑크리본사랑 마라톤'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유방암 예방 홍보



유방암에 대한 예방의식 향상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핑크리본사랑 마라톤'이 오는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고 태평양과 아이스팟이 주관하는 이 마라톤은 5km·10km로 나눠 실시된다. 완주자에게는 기념티셔츠·안내책자·완주메달·기록증 등이 주어진다.

1인당 1만원씩의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유방암 예방, 홍보활동과 저소득층의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 무료검진 등의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또 마라톤에 참가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사생대회, 가수공연, 경품추첨, 부부사랑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접수마감은 12일까지이며, 참가희망자는 홈페이지(www.pinkmarathon.com)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0대그룹 여직원 증가속도

남성보다 8배 빨라

지난해 10대그룹의 여성 직원수가 남성 직원보다 8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성 직원들의 퇴출이 지속된 가운데 여성취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8일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0대그룹 계열 66개 상장사의 2005년 말 기준 직원수는 41만5천181명으로 전년 말 대비 8.60% 늘었다.

이 중 남직원은 33만308명으로 4.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여직원은 8만4천873명으로 30.89% 증가해 남직원 증가율의 7.6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농업분야 창업보육기관'

농림부 선정, 7억원 지원

전남대 창업보육센터가 호남지역 농업분야 창업기업 보육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농림부는 전남대 창업보육센터를 호남지역 농업분야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농업전문 창업보육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대는 국고 7억원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 시설을 확충한 뒤 내년에 공고를 통해 18개 사에 대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 전문 창업보육센터로는 수도권의 서울대,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3곳이 운용중이며 영남권의 경상대가 오는 6월 개설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강원권과 충청권에서 1곳씩을 선정, 농업분야 창업보육의 거점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바이오 벤처기업인 RNL생명과학 등이 주요 성공사례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자산 100조원 '금융 거인' 늘었다

삼성생명 지난달 말 돌파 ... 총 6곳으로

자산규모 100조원 이상인 '100조 클럽'에 가입하는 금융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산 100조 클럽이란 100조가 넘는 자산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조건을 갖춘 '리딩(선도) 금융사'를 말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3월 말 현재 총자산 99조 6천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달 말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생명의 자산 100조원 돌파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산규모를 키워온 은행들과 달리 순수하게 자체영업만으로 달성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어서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합병, 총 자산 규모 163조원으로 당당히 100조 클럽에 합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자산 103조원으로 100조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국내 금융업계에서 자산 100조 클럽 금융사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3개사에 불과했다.

창립 첫 해인 1957년 자산 800만원에서 출발, 반세기 만에 자산규모로 1천250만배의 성장을 거둔 셈이다.

이어서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합병, 총 자산 규모 163조원으로 당당히 100조 클럽에 합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자산 103조원으로 100조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국내 금융업계에서 자산 100조 클럽 금융사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3개사에 불과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100대 기업 CEO 중 최장수 '非 오너'



우리나라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최장수 전문경영인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은 200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CEO 13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32년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최장수 CEO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이어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28년),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17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부회장(17년) 등 '오너' 경영인들이 CEO 재직기간 상위에 올랐다.

전문경영인들 가운데는 16년째 CEO로 재직중인 윤 부회장을 비롯해 이상윤 농심사장(14년),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13년),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유병택 두산 부회장, 이종구 삼성테크윈 사장, 최준근 한국HP사장, 오상수 만도 사장(이상 11년) 등도 재직기간 10년을 넘긴 장수경영인으로 꼽혔다. 특히 7년 이상 재직한 CEO 가운데는 삼성계열사 경영자가 10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5.27년이었으며 재임기간이 5년이 채 안된 CEO가 76명(57%)이나 돼 CEO로서 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최장수 CEO로 나타났다고 밝

KT&G, 타르 1mg '레종 블랙'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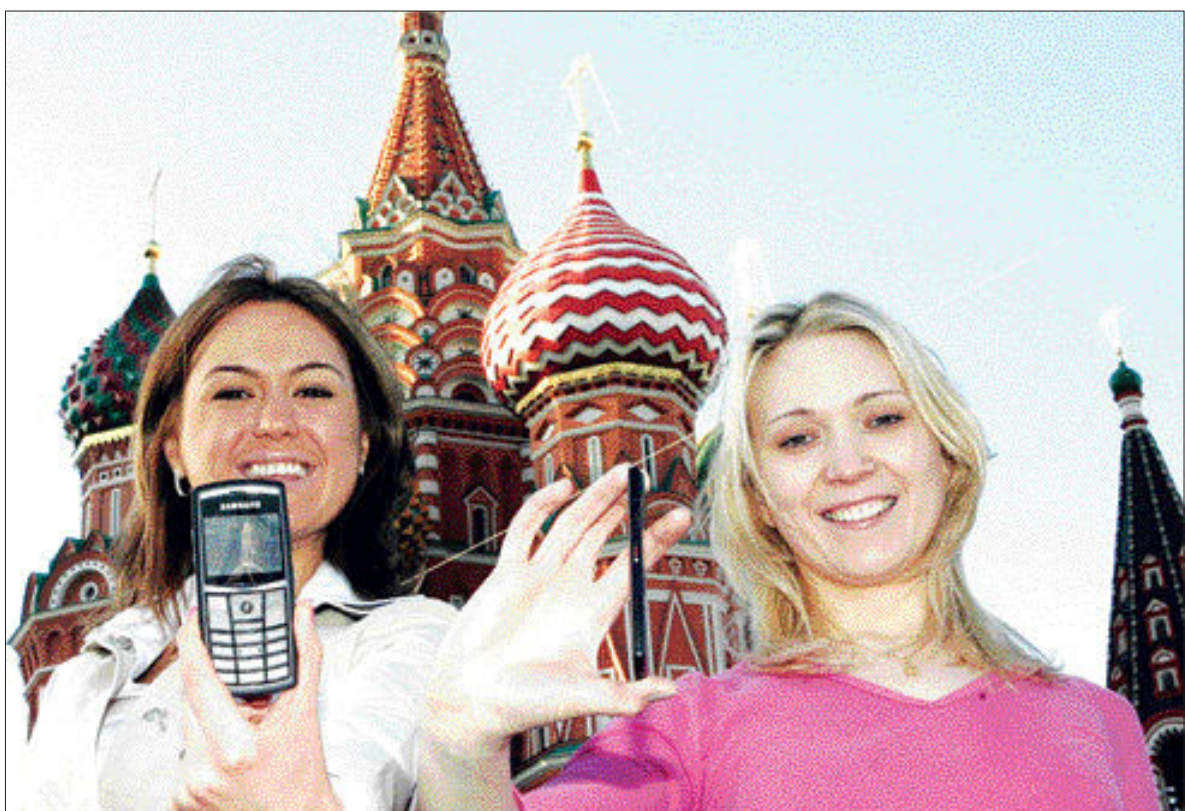
KT&G는 2002년 출시 이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은 '레종(RAISON)'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고, 초저타르 제품으로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는 소비자 기호의 추세를 반영해 레종 타르 1mg 제품을 개발, 10일 전국에 동시 출시한다.

'레종1mg'의 20개비들이 1갑당 소비자가격은 기존 레종패밀리(레종 블루, 레종 후레쉬)와 같은 2천500원이다.

레종1mg의 공식 제품명은 '레종 블랙'으로 레종 본래의 컨셉을 유지한 채 타르를 1mg으로 낮춰 더욱 순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요즘 패션 및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블랙 컬러를 적용, 다소 과격적인 변신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개성 창출을 시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 애니콜 '두께 7mm 벽' 허물었다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스비아즈 엑스포를 앞두고 모스크바 미녀들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6.9mm 두께의 '울트라 슬림폰'을 바실리 성당 앞에서 들어보고 좋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휴대전화인 '울트라 슬림폰'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6.9mm 두께의 '울트라 슬림폰(모델명 : SGH-X820)'을 개발, 10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정보통신전시회인 'Sviaz ExpoComm 2006'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사상 최초로 7mm대 벽을 뛰어넘으며 휴대전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디자인 및 기능별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초박형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슬라이드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휴대전화인

세계 최초로 6.9mm

'울트라 슬림폰' 개발

첨단 기능 두루 갖춰

'스킨(SCH-V890/SPH-V8900, 13.8mm)'을 비롯 '카드형 초슬림폰(SGH-P300, 두께 8.9mm)', 세계 최박형 WCDMA폰(SGH-Z150, 두께 9.8mm), 세계 최박형 스마트폰(SGH-i320, 두께 11.5mm) 등을 선보였다.

이번에 개발된 '울트라 슬림폰'은 심플한 바(Bar) 타입 디자인으로 초박형 두께에도 불구하고 200만화소 카메라, 캠코더, MP3, 블루투스, 파일

뷰어, TV아웃 등 최첨단 기능을 두루 갖췄다.

이 제품은 이번달에 러시아를 비롯 유럽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울트라 슬림은 슬림(Slim) 디자인, 강한 내구성(Strength), 첨단 기능(Powerful)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얇으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가진 최첨단 기능의 초슬림폰을 말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은 "얇으면서도 강한, 그리고 최첨단 기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디자인의 슬림폰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차별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트렌드를 창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Lists various job openings in Gwangju.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